동물에서의 질병이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장 긍 순 전무 | 바이엘코리아(주)

1990년대 만 해도 일반인들은 육계가 출하되는 데 한달 조금 넘게 밖에 걸리지 않으며, 가축에게 구충제, 영양제를 먹이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과 똑같이 다양한 약제와 시술이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기해하기까지 했다. 최신 시설의 무창계사 한 동에서 달걀이 매일 10만개가 넘게 나오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그저 동화나 전설 같은 '신기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가축들의 이야기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세계' 이야기일 뿐이었다. 하물며 가축들의 건강이나 질병은 전혀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가축들의 질병은 가축들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떠나면 축산인의 측면에서는 성장이 더디거나 균일하지 못한 성장, 폐사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던 가축의 질병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갑자기 뛰어들게 된 것은 2000년 3월말 구제역 발생 때문이었다.

2000년 1월은 예년 같으면 비수기로서 산지 돈가가 약세인 시기이나 모처럼 100kg 출하돈 기준 20만원 대를 넘는 좋은 가격으로 출발하여 양돈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상승하던 돈가는 3월 하순에 구제역 발생으로 큰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와 돼지들에게 심각한 질병이기에 강력한 이동 제한, 감염 동물 및 감염 의심 동물들을 땅 속에 매몰하는 장면을 TV 뉴스로 생생히 접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저렇게 심각히 다루는 질병이니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막연한 두려움은 막강한 파괴력을 발휘하여 육류 소비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4월에는 회

복기임에도 불구하고 15만원대로 급락했다. 2000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쇠고기 수입 자유화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 말 310만원 정도 하던 500kg짜리 숫소가 구제역 발생 전달에 285만원 정도로 하락했는데 구제역 발생 후인 5월에는 250만원으로 급락하고 말았다. 2002년 5월에 다시 발생한 구제역은 고기를 요리해 먹으면 괜찮다는 그 동안의 홍보로 인해 1차 발생 시 보다는 영향이 적었으나 육류 소비를 감소시켰다.

2001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국가적 방역에 집중하여 국내 발생을 막았다. 그러나 결국 2003년 12월에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 질병은 구제역과는 달리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의심이나 걱정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닭 · 오리고기, 달걀 소비량은 40% 이상이 감소되었다.

이때의 피해는 양계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농장 관련인들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구덩이를 파고 닭들을 묻는 작업을 했다. 며칠씩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해야 했던 그 작업의 고됨도 고됨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생으로 매장할 때의 그 가슴 아픔이란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또한 오리고기를 다루는 식당들은 속속 문을 닫아야 했고 닭고기 요리 전문점들도 텅텅 비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닭고기 소비 촉진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2개월 정도의 선에서 무사히 넘기고 회복되었으나 이미 그 피해는 실로 엄청 났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가축의 질병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가축의 질병이 가축과 축산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문제고 인류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되어졌다.

2005년 10월 중순에는 외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국내 발생 경보를 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닭 값은 즉시 5% 정도 떨어졌고 달걀 값은 17%나 떨어졌다. 급기야는 긴급 진화를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는 달걀 30개들이 한 판에 단돈 1,880원, 생닭은 병아리 값에 지나지 않는 한 마리에 990원만 받고 파는 특별 세일을 벌이기도 했다. 병아리 값에 팔아서라도 소비자들의 우려와 공포를 완화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 2006년 11월 하순에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닭고기와 달걀의 소비는 즉각 20~30% 하락했다. 그러나 닭고기 요리 전문점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했다. 한번은 점심 시간에 일부러 닭고기 요리를 먹으러 갔더니 손님이라곤 달랑 우리 일행 뿐이었다.

아, 광우병.

가축 질병이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서 핵폭탄급이었던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리라 믿는 광우병이었다. 2008년은 그야말로 광우병으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에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은 온 나라와 국민들을 핵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촛불집회, 인터넷, TV, 신문 등에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른 진영끼리 숱한 공방을 주고 받았고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 놓고 말았다. 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계속 국가적 생앓이를 하고 있다. 가축에서의 질병이 전국을 뒤 흔들고 국민을 둘로 나누어 버리고 국가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나아가 야심차게 국가 최고 지도자직분을 수행하려던 대통령의 신뢰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주고 다른 사안을 수행하는 데에도 엄청난 장애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2008년을 휩쓸었던 광우병 사태가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2009년 4월에 우리와 전세계는 또다시 하나의 질병으로 공포에 떨게 되었다. 멕시코발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간 돼지 인플루엔자. 뒤에 이 질병이 돼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신종 인플루엔자'로 불리면서 축산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종종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과연 돼지나 돼지고기와 '신종 인플루엔자'가 관련이 없는지 질문을 받곤 한다.

다른 질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쉽고도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괜찮다'고 답을 해 주어도 그들의 마음 속에 가라앉은 찜찜한 느낌은 지워 주질 못하고 만다. 그들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찜찜함을 참지 못하고 그 다른 대안을 찾아 가버리고 만다.

아직도 언론에서는 1916년에 발생하여 6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인플루엔자(이즈음 1918년 우리나라에서도 14만명이 '악성감기'로 사망했다고 한다)의 악몽을 되살리며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걱정을 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나비 효과'라 했던가? 아마존 유역에 사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것이 계속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결국은 태풍을 일으킨다고.

인류의 수명과 건강을 연장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해 온 것이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 즉 축산업이라고 한다. 축산업이 그저 뒤에서 조용히 인류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젠 동물에서의 질병이 인류의 역사를 직접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옛날에는 몇 달씩 걸려야 전세계로 퍼지던 것이 이젠 인터넷, 멀티미디어, 교통수단 등의 발달로 며칠이면 아니 즉각적으로 전세계로 퍼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젠 내 농장의 닭 한 마리가 재채기를 하면 전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 떨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 축산인은 이제 가축에서의 질병이 경제성의 많고 적음의 차원에서 벗어나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익히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가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엄청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 최소한의 청결과 소독은 아무리 귀찮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